

농촌주민의 여가소비유형과 만족도

Rural Residents' Leisure Satisfaction and Types by Social demographics in Korea

조영숙* · 이문주** · 황대용***

Young Sook Cho · Moon Joo Lee · Dae Yong Hwang

Abstract

Based on Rural living indicator -2005 survey data, in RDA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Rural Residents' real life satisfaction or identity model by the types of leisure consumption depending on each generation and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consumption and the enhancement of self-ident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that between leisure consumption satisfaction and real life satisfaction. Based on systematic random sampling with constructed questionnaires, 1,870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Overall,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eneration in leisure consumption. In detail,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types of Rural Residents' leisure consumption can be divided into three styles including Semi-leisure type, Passive leisure type and Total leisure type consumption. The preferred types of leisure consumption of Rural Residents' were Semi-leisure type, Passive leisure type and Total leisure type in order. Except for time-spending leisure culture consumption, Semi-leisure type and Passive leisure type influenced on the enhancement of self-ident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then the enhancement of self-ident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연구사. e-mail: joys@rda.go.kr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원. e-mail: fromge@rda.go.kr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연구사. e-mail: hdy@rda.go.kr

influenced on leisure consumption-satisfaction, and finally leisure consumption satisfaction influenced on real life satisfaction.

주요어(key words) : 여가소비유형(Leisure time spending),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여가정체성(Enhancement of Self-identity), 여가활동 대인관계(Enhancemen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여가만족도(Leisure Satisfaction)

1. 서 론

인간의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회복하고 가정 및 지역사회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왔다. 여가시간은 더 이상 '남는 시간'이나 '노는 시간'이 아니라 현재의 자신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며 미래의 발전을 위한 장이 되고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여가생활은 반복적이고 경직된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거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시간으로 사람들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다양한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과 지원이 이루어지는 도시와는 달리 농촌지역에는 거의 없거나 열악한 현실 속에서 농촌지역 주민에 대한 바람직한 여가생활을 위해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농촌주민이 자주 접하게 되는 TV, 신문, 영화 등이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한 도시의 화려한 문화생활과 자신들이 거주하는 농촌과 도시 환경의 격차로 인해 가치관의 혼란, 상대적인 빈곤이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도시민에 비해 농촌 주민에게 여가시간은 삶의 질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일보다 여가를 중요시 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여가소비가 삶의 질과 만족도에 대한 척도로 사용되고 있다. 여가를 즐

기는 삶이 행복한 삶의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여가소비가 삶의 질과 만족도에 대한 척도로 사용되고 있다. 여가를 즐기는 삶이 행복한 삶의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여가소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여가는 단순히 노동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삶의 의미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김광득, 1997). 현대사회에서 여가가 삶의 목적이 되고, 노동은 여가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수단으로 변모했으며 여가시간에 이루어지는 TV시청, 영화, 스포츠, 독서, 공연, 연극, 미술, 음악, 전화, 커뮤니케이션 등의 활동은 문화를 발전시키는 수단이 된다. 여가는 인간의 삶 속에서 문화 창조의 토양이 되며, 여가 활동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여 전승, 발전되기도 한다. 현대의 사회유형은 정보사회를 지나 여가문화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드림 소사이어티로 진행하고 있다.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의 생산과 '일' 중심의 사회에서 '여가' 중심 사회로 옮겨가면서 개인생활은 경제활동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다원적인 여가활동사회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여가문화활동은 개인의 여가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안경일, 김재현 2002). 가정, 직장, 학교 등에서 인간관계망의 질을 제공해 준다(김광일, 김명애, 정재엽, 신종관, 2003, 박장근, 2007: 이진아, 2000). 또한 자존중감, 정신건강, 삶의 질 등의 변인들이 삶의 긍정성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Zuzanek, J., John Robinson & Yoshi Iwasaki, 1998: 이동현, 김승철, 2003) 여가시간의 소비방식과 개인적 및 사회적 삶의 내·외적 질 간의 상관연구는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되어왔다. 특히, 여가를 경험의 질로서 파악하려는 연구(Kelly & Freysinger, 2004: 성영신의, 1996)는 내적동기, 자유, 자아성취 등 경험자체를 종속변인으로 두어 수행되었다. 특히 이들 개념이 개인의 여가 정체성이나 삶의 질을 반영한다고 가정하면, 농촌 지역의 주민들의

세대별 주된 여가활동을 유형별로 살펴보고, 이들 여가활동에 따른 여가 정체성과 대인관계,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이론적 고찰

2.1. 여가소비 유형

일반적으로 여가는 노동이나 의무감으로부터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을 뜻하며 사전적 의미로는 ‘일을 하다가 쉬는 틈’이다. 여가활동은 노년기 사회적 활동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취미활동, 봉사활동, 친밀한 사람과의 교류, 지역사회활동의 참여 등을 포함한다. 여가활동 참여는 다른 사람과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만남을 통해 사귀게 된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나 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거나 지지해줄 수 있는 지원망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여가활동은 상호 유사한 특성을 내포하고 있고 각 활동을 구분할 수 있는 분류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유형은 분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매우 상이한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이는 여가활동이 상호 유사한 내면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각 활동 유형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분류 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Kaplan(1960)은 여가활동을 여가 가치지향에 따라 사교와 교제활동, 게임과 예술 활동, 정적활동으로 분류하였으며, Lutzin과 Storey(1973)는 여가활동을 동기 및 그 표현 형태에 따라 신체적 활동, 동기가 대인간의 상호작용인 사교적 활동, 예술적·역사적·민족적 기초를 지닌 문화적 활동, 자연세계와의 접촉을 목적으로 한 옥외활동인 자연 활동, 주된 동기 및 표현 양식이 지적활동인 정서적 활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반해 Mckechnie(1974)는 여가활동은 주로 손과 도구를 이용하는 조작적 활동, 재료를 이용하는 대상을 만드는 공작적 활동, 활동적·의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적 활동, 일상 주변에서 행할 수 있는 일상적 활동, 그리고 활발한 신체활동을 필요로 하는 스포츠 활동으로 분류하였으며, Orthner(1975)는 다른 사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혼자 할 수 있는 개인 활동,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주로 무생물을 이용하는 병행활동,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는 결합 활동 등으로 분류하였다. Crandall(1979)은 여가활동을 활동유형에 따라 스포츠, 문화적 소극적, 생산적 지적 활동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유형분류가 결국은 여가참여자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여가정체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Fairchild(1944)는 대체로 일하는 시간, 수면 시간, 그리고 작업 또는 일하는 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여가라고 간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가는 시간, 활동, 상태, 제도, 포괄적 관점에서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문숙재, 윤소영, 차경욱, 천혜정, 2007; 오상훈, 임화순, 고미영 2006). 시간적 측면에서의 여가는 일이나 그 밖의 의무적인 활동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시간을 의미하며, 활동적 입장에서의 여가는 자유시간 중에 행하는 모든 활동을 나타내고, 상태적 측면에서의 여가는 주관적인 태도이며, 참여자의 관점, 느낌, 가치, 과거의 인생경험을 기초로 한 경험이다. 제도적 입장에서의 여가는 노동, 결혼, 교육, 정치, 경제 등 사회제도의 상태나 가치유형과의 관련성을 토대로 그 의미를 규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가란 시간적, 활동적, 상태적, 제도적 요소를 모두 지닌 통합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측면에서 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를 들면, 김광득(1997)은 여가란 개인이 가정, 노동 및 기타 사회적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휴식, 기분전환, 사회적 성취, 개인적 발전을 위해 활용되는 시간 혹은 개인이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 탐닉하는 일로서

직업, 가정 사회적 의무를 이행한 후에 휴식, 즐길, 지식증대, 기술향상, 지역 사회봉사를 위한 자발적인 참여 등을 수행하는 활동이라 정의한다 (오상훈, 임하순, 고미영, 2006). 여가시간 활동을 목적론적 여가, 수단론적 여가, 시간론적 여가, 활동론적 여가, 계급론적 여가로 분류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목적론적 분류는 인간다운 삶의 실현으로 보는 시각으로 노동이후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여가문화에 따라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수단론적 분류는 노동과 생산성향상을 위한 재충전 과정으로 보는 시각이다. 시간론적 분류는 노동과 생리 시간을 제외한 잔여시간차원에서 분류하는 것으로서, 생활활동 중간에 나타나는 시간분배연구에서 여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활동시간을 말한다. 활동론적 분류는 노동과 비노동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계급론적 분류는 하위계급과 지배계급사이에 사용되고 소비되는 문화자본의 속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분류이다. 이는 Veblen이 말하는 유한계급(the theory of the leisure)에 나타나듯이 유한계급자들이 과시형식으로 여가문화를 소비하고, 노동자, 중간계급은 자기계발을 위해 여가 문화를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여가문화를 봉사활동, 운동, 등산, 스포츠 등의 적극적인 활동과 관람, 감상, TV, 라디오 청취 등은 소극적인활동으로 나누고 있다. 이외에도 신체를 이용한 조작활동, 사고를 이용한 지적활동, 일상생활인 생활 및 스포츠활동으로 구분한 연구(Mckehnie, 1974).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주민의 세대별 여가소비 유형을 Szalai(1972)의 여가유형 분류에 기준하여 기준여가(semi-leisure), 수동적 여가(passive leisure), 완전 여가(total leisure)로 나누고, 기준여가는 신체회복활동, 학습, 종교 활동, 조직 활동 등을 포함하며, 수동적 여가는 음악 감상, TV시청, 독서, 신문구독, 영화감상 등이 속하고 완전 여가는 관람, 오락, 사교활동과 스포츠, 기준여가 및 휴양 등으로 하였다.

2.2. 여가활동과 대인관계 및 여가정체성

여가란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여가활동에 대한 전반적이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여가활동에 대한 말 그대로의 선호도 수준을 의미한다. Iso-Ahola(1980a)는 어떤 여가 활동에 참여하는데 보상을 얻는다는 믿음을 가진다면, 그 활동에 대한 태도는 매우 긍정적이 된다고 하였다. 결국, 일생에 걸쳐 다양한 여가 활동이 개인에게 내재적 보상을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개인의 전반적인 여가 태도는 긍정적인 여가 체험을 추구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가태도와 여가경험의 관계는 사실 양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가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여가 참여의 가능성 증가하고 실제로 그 경험이 긍정적일 수 있지만, 역으로 여가 경험이 긍정적이라면 그것은 일종의 내재적 보상이 되어 초기의 태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여가 태도와 여가 경험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여가 경험은 질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양적인 측면도 있다. 여가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심리학자들은 경험의 차원을 기준으로 그것을 구분하기도 하였지만(고동우, 2002; Neulinger, 1981; Mannell & Kleiber, 1997), 경제학자나 사회학자들은 제도적 측면을 고려하여 양적 차원에서 여가 현상을 이해하여 왔다. 그래서 자유시간 혹은 여가 시간의 개념은 여가 경험의 양적 차원으로 고려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여가 경험을 횡수와 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이 활용되어 왔다. 주어진 기간 동안 여가 활동에 참여한 횟수, 활동 유형, 그리고 참여한 시간 등은 대표적인 변수들이다. 여가 목록의 형성 개념을 정립한 Iso-Ahola(1980b)는 여가에 참여하는 시간과 횟수를 사람의 일생에 대입하여 모형화하기도 하였다. 여가활동참여는 개인들에게 대인관계, 사회관계 및 인간관계를 개선시켜 줄 뿐만 아니라 교육기회, 창의성, 정서적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자아를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이승훈, 1996).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이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보다 대인관계성향이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박장근, 임란희, 정승철(2007)은 노인의 여가활동 유형과 사회성 및 사회·대인관계불안감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 스포츠 등 동적인 여가활동을 즐기는 노인들이 취미나 교양 등 정적인 여가활동을 즐기는 노인들보다 더욱 사회성이 높고 사회·대인관계 불안감이 낮음을 발견했다. 이진아(2000)는 주부의 신체적 여가활동 참가와 대인관계성향에 관한 연구에서 신체적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부는 참여하지 않는 주부에 비해 대인관계성향과 사회관계성향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여가정체성의 개념은 전통적으로 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었을 뿐 아니라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한 활동 경험을 의미하는 여가 현상을 이해하는데도 주요하게 다루어져왔다. 여가학 분야 대표주자인 Kelly(1993)는 여가활동이야말로 여가정체성을 구성하는데 유용한 맥락을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가 경험은 자기의 능력이나 성격 모습을 반영하는 장이 되기 때문이다. 가령, 창의적 성격을 가진 이들은 창의적 활동을 수행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전적인 여가활동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고동우, 2007). 그래서 여가 경험과 관련된 여가정체성을 학자들은 여가 정체성(leisure identity)이라고 불려왔다(Mannell & Kleiber, 1997; Paluba & Neulinger, 1976; Shamir, 1992; Stebbins, 1992; Haggard & Williams, 1992). 여가 정체성이 여가정체성의 하위 차원일수도 있고 선행 변수일수도 있다는 결론짓고 있다. 왜냐하면 여가정체성이 인생 전반에 걸쳐 있는 자기 이미지에 대한 표상이라면 여가 정체성은 여가 행동이라는 영역에 제한된 자기 개념으로서 여가 활동을 통해 자기 가치관, 성격, 능력, 외모, 사회적 지위 등을 표현하고자 할 뿐 아니라(성여신, 고동우, 정준호, 1996; Shamir, 1992), 여가 경험은 개인의 핵심 가치로서 자신의 여러 가지 역량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Kleiber & Kirshnit, 1991). 여가 영역은 여가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선행 요인이거나 하위요인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전체적인 혹은 완성된 자기 개념을 형성하는 데 있어 여가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Shamir(1992)는 전반적인 여가 경험이 정체성과 관련될 것이고, 여가 정체성은 여가정체성이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특히 Stebbins(1992)에 따르면, 일반적인 여가(casual leisure)보다는 진지한 여가 경험(serious leisure)이 여가정체성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진지하다는 의미는 관여 수준이 더 강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Shamir(1992)나 Stebbins(1992)의 논리는 결국 여가활동의 유형이나 실제로 지각하는 주관적인 여가 체험의 종류에 따라 정체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준다. 한편, 이들의 논리는 여가활동의 유형에 따라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즐거움의 종류가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실제로 일반적인 여가 참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여가활동의 유형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그 활동이 구조적으로 지니고 있는 재미의 종류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재미의 체험이 여가 경험의 내용에 해당된다면 여가활동의 유형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릇이나 형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가 정체성이나 여가정체성의 형성과 관련하여 여가 활동의 유형만이 아니라 여가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지각하는 재미의 체험이 중요할 수 있다. 나아가 자주 참여하는 여가활동 유형과 가장 즐거운 여가 활동 유형이 일치한다면 이는 확고한 여가 정체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둘 사이에 괴리가 있다면 아직 여가 정체성이 확고하게 형성되지 않았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진술의 논리적 근거는 전통적이 여가정체성 이론에서 추론할 수 있다. 예컨대, Higgins나 Rogers 등 전통적인 심리학자들은 실제적인 자기(actual self), 이상적인 자기(ideal self), 사회적 자기(social

self) 등의 하위 개념을 제안하였고, 이들 개념에 근거하여 일부 여가학자들은 여가활동을 통한 정체성 확증이론을 제시하기도 하였다(Haggard & Williams, 1992). 즉 여가 정체성의 개념이 중요하고 여가 경험이 여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논리는 소위 정체성 확증 이론(identity affirmation theory)으로 불린다(Mannell & Kleiber, 1997).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자주 수행하는 여가활동을 통하여 원하는 즐거움과 만족스런 결과를 얻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정체성 확증 이론의 논리를 따르면 가장 자주 참여하는 여가활동과 가장 만족스런 여가활동은 일치할 것이다. 그래야만 여가정체성이 유지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가장 자주하는 참여하는 여가활동이 가장 즐거운 경험을 가져오는 여가활동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경험하는 것과 같은 것이며, 이런 경우는 여가 정체성이 강하게 형성되지 않았음을 반영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그 두 가지가 일치하는지에 비하여 전반적인 여가 태도나 주관적인 여가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2.3. 여가활동 만족도

여가활동유형과 여가활동만족도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연령에 따른 여가활동유형에 있어서 김정근(1998)은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가활동 연구에서 연령에 따라 여가활동에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신정화(1995)는 한국관광공사 자료를 인용하여 19세이하는 신체적 및 정성적 여가활동을, 20에서 30대는 적극적인 대인관계형 여가활동, 40대에서 50대는 정적인 여가활동을 60대 이상은 사교적 여가활동을 선호한다고 주장했다. 여가활동만족에 있어서 윤이중(1996)은 연령이 직장인의 여가활동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김정근(1998)은 여가활동만족도가 연령에 따라 다르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정영린(1997)은 연령에 따라 생활체육참가활동 만족도에 별 차이가 없음을 보였고, Russel(1990)은 연령과 레크레이션 만족도 간에 낮은 부적상관관계를 발견했으며, 연령과 여가활동만족도 간에 부정적 상관관계는 있으나 유의미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보고했고(Mancinid & Orthner, 1980), 연령과 여가활동 만족도 간에 곡선적인 관계는 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Riddick, 1986). 여가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결과를 조사한 많은 연구들이 여가활동이 삶의 질이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기존 연구들은 특정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자체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심리상태를 유발하여 개인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인다고 주장한다. 즉,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의도하지 않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Diener, 1984). 예를 들면, 국내 연구의 경우, 수도권 거주 노인의 고독감과 여가만족도 및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연구한 원형준(1994)은 노인의 고독감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이며, 고독감의 해소는 여가활동을 통한 여가만족도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기준여가가 수동적 여가보다 총체적인 삶의 질과 상관관계가 높다고 보고하면서 적당한 수준의 신체적 각성을 유발시키는 여가활동은 삶의 질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Flanagan, 1978). 동적인 신체적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TV 시청과 같은 정적인 활동을 하는 것보다 여가정체성 확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Shaw, Kleiber & Caldwell, 1995), 유사한 맥락에서, 레크레이션 활동에 자주 참여한 학생일수록 학문적 스트레스는 감소하고,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화에 겪는 스트레스는 낮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Ragheb & Mckinney, 1993). 그리고 여가 동기, 여가태도, 여가활동, 여가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를 한국과 독일 대

학생을 대상으로 비교 연구하였다(김정운, 이장주, 2005). 이러한 연구 결과는 문화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능동적 혹은 적극적인 여가활동이 여가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농촌주민들의 여가활동 유형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조사의 목표모집단은 전국에서 읍/면 지역에 속하는 모든 일반가구이다. 한편 조사모집단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의 읍면지역의 인구 및 가구수로 하였고, 표본선정은 다단계화집락추출법에 의해, 1차 추출단위들의 추출 틀로는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 총 조사의 동/읍/면 자료를 활용하였고 2차 추출단위는 표본 읍/면내의 행정리이며, 최종 추출단위인 3차 추출단위는 개별가구이다. 선정된 표본은 88개 시군 187개 행정리 1,870가구이며, 가구주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전체 표본의 크기는 1,870가구이다. 응답자 1,870명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이 농가가 73.4%로 대부분이고, 여성(46.0%)에 비해 남성(54.0%)이 조금 많았으며, 98% 이상이 기혼자이며, 40대 이하가 21.2%, 60대 이상이 57.2%로서 연구대상이 고연령층이 많았고, 학력은 초졸 이하가 58.9%, 고졸 이상은 22.8%였다. 직업은 농업직이 61%로 높았고, 가족수는 2명이 40.4%로 주를 이루었으며, 세대별로는 1인가구를 포함한 1세대가 52.7%를 차지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

구 분		구성비	구 분		구성비
농가여부	농가 비농가	(1373)73.4 (497)26.6	직업	농업 임/어업	(1141)61.0 (27)1.5
성별	남성 여성	(1010)54.0 (860)46.0		전문직 사무관련직	(36)1.9 (16)0.9
결혼 유무	결혼 미혼	(1844)98.6 (26)1.4		판매직 서비스직	(37)2.0 (74)3.9
연령	30대 이하	(91)4.9	가족 수	단순노무직	(83)4.4
	40대	(305)16.3		가정일, 기타	(456)24.4
	50대	(405)21.7		1명	(292)15.6
	60대	(515)27.5		2명	(756)40.4
	70대 이상	(555)29.7		3명	(299)16.0
학력	무학	(423)22.6	가족형태	4명	(273)14.6
	초졸	(678)36.3		5명 이상	(250)13.3
	중졸	(342)18.3		1세대	(987)52.7
	고졸	(352)18.9		2세대	(619)32.9
	대학 이상	(74)3.9		3세대	(258)14.0
계	100.0(1,870)	계	100.0(1,870)	4세대	(7)0.4

3.2. 연구방법

본 조사는 2005년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2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면접원이 가구를 방문하기에 앞서 조사대상 지역의 읍면 사무소에 공문을 전송하여 조사에 대한 안내와 협조를 구하였고 조사지역의 이장에게도 협조를 요청하여 사전홍보를 실시하였다. 조사지역에서 가장 큰 마을의 이장으로부터 마을의 가구명부를 확인하였으며, 가구명부에서 계통추출방법으로 조사가구를 선정하였다. 추출된 조사가구를 방문하여 조사가능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조사가 불가능한 가구는 대체원칙에 따라 가구를 대체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교육 및 훈련을 받은 면접원이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가구주나 배우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가구에게 조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조사에 대한 협조를 구한 뒤 구조화된 조사표에 의해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주민의 여가생활영역에서 여가참여유형, 여가문화소비와 여가정체성 및 대인관계, 생활만족도를 조사 분석하였다

3.3. 자료처리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지표조사로 총 1,870부의 자료 처리 및 분석은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가참여유형, 여가활동과 대인관계 및 여가정체성, 만족도 등에 대한 점수는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그 밖에 세대별 여가소비유형과 삶의 만족도에 설문 등의 유의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그리고 t -test, 일원변량분석, χ^2 -test 등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농촌주민의 여가소비 유형

농촌주민의 여가소비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주된 여가활동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TV·비디오 보기, 라디오 듣기, 음악 감상'(37.7%)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이웃, 친구와 이야기'(22.2%), '집에서 그냥 있음'(16.4%), '운동, 등산, 낚시, 여행'(10.2%), '신문, 잡지, 책읽기'(5.4%), '화투, 장기, 바둑'(4.5%)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된 여가활동을 활동 유형에 따라 기준여가활동, 수동적 여가활동, 완전한 여가활동으로 유형화하였다. 'TV·비디오 보기, 라디오 듣기, 음악 감

상', '신문, 잡지, 책읽기'를 기준여가 활동으로, '이웃 친구와 이야기하기', '집에서 그냥 있음'을 수동적 여가활동으로, '화투, 장기, '운동, 등산, 낚시, 여행'을 완전한 여가활동으로 분류하였다. 'TV·비디오 보기, 라디오 듣기, 음악 감상', '신문, 잡지, 책읽기' 등 기준여가 활동은 농가, 남성, 60세 이상, 초졸 이하 및 고졸이상에서, 부부가 함께 사는 가족, 가족 수는 1~2인이나 5인 이상인 가족에서, 1세대나 3세대 이상 사는 가족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웃 친구와 이야기하기', '집에서 그냥 있음' 등의 수동적 여가활동은 비농가, 여성, 60세 이상, 학력이 낮은 층, 외딴 가족, 가족수가 1~2명, 1세대 가족에게서 높았으며, 장기나 운동 등의 완전여가 활동은 비농가, 남성, 젊은 층, 고학력층, 부부가족, 가족수가 3-4이고 2세대 가족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농촌주민들이 완전여가활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특히 수동적 여가활동에 머물러 있는 비농가, 여성, 60세 이상, 저학력 층, 외딴 가족, 가족수가 1~2명인 가족들의 여가활동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표 2〉 농촌주민 여가소비 유형

N(%)

구 분		계	기준 여가활동	수동적 여가활동	완전 여가활동	$\chi^2(df)$
계		1,611	(715)44.4	(653)40.5	(243)15.1	
농가 여부	농가	1,194	(562)47.1	(482)40.4	(150)12.6	26.97(2)***
	비농가	417	(153)36.7	(171)41.0	(93)22.3	
성별	남성	878	(424)48.3	(302)34.4	(152)17.3	30.93(2)***
	여성	733	(291)39.7	(351)47.9	(91)12.4	
연령	40대 미만	322	(138)42.9	(110)34.2	(47)23.0	53.84(4)**
	50대	343	(129)37.6	(137)39.9	(77)22.4	
	60세 이상	946	(448)47.8	(406)42.9	(92)9.7	

학력	초졸 이하	983	(441)44.9	(455)46.3	(87)8.9	93.39(4)***
	중졸	290	(125)43.1	(104)35.9	(61)21.0	
	고졸 이상	338	(149)44.1	(94)27.8	(95)28.1	
결혼 유형	부부	1213	(545)44.9	(463)38.2	(205)16.9	22.53(2)***
	외짝	347	(143)41.2	(174)50.1	(30)8.6	
가족 수	1-2인	937	(427)45.6	(411)43.9	(99)10.6	38.33(4)***
	3-4인	473	(196)41.4	(173)36.6	(104)22.0	
	5인 이상	201	(92)45.8	(69)34.3	(40)19.9	
세 대 수	1세대	888	(408)45.9	(390)43.9	(90)10.1	40.63(4)***
	2세대	510	(210)41.2	(187)36.7	(113)22.2	
	3세대 이상	213	(97)45.5	(76)35.7	(40)18.8	

<0.01, *<.001

4.2. 공공여가시설 이용경험과 이용 정도

여가를 위해 공공시설(군민회관, 민사무소, 도서관, 농업기술센터, 건강관리실 등)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층이 32.8%였으며, 경험정도는 농가, 남성, 중졸층, 부부가족에서 조금 높았던 반면, 비농가, 여성, 무학층, 외짝가족에서 경험률이 조금 낮았다. 이용 정도는 교육, 모임이 있을 때 주로 이용한다는 응답이 52.4%로 가장 많았으며, '1달에 1~2회, 1주일에 1~2회' 순이었다. 연령에 따른 이용정도는 60세 이상 고연령층에서 1주일에 1~2회와 1달에 1~2회 가는 비율이 타 집단보다 높아 고연령층에서 이용정도가 높았다. 세대수별로는 3세대 이상에서 1주일에 1~2회 가는 비율이 높고 1세대에서 1달에 1~2회 가는 비율이 높아 가족 내 노인들이 더 많다고 여겨지는 3세대 가족에게서 공공시설 이용빈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3〉 공공여가 시설 이용경험과 이용정도

N(%)

구 분	계	이용경험		χ ² (df)	계	이용정도			χ ² (df)
		이용	이용 안함			1주일에 1-2회	1달에 1-2회	교육, 모임이 있을때	
계	1,835	(602)32.8	(1233)67.2		618	118(19.1)	175(28.3)	325(52.6)	
농가 여부	농가 1,354 비농가 481	(494)36.5 (108)22.5	(860)63.5 (373)77.5	31.70(1)***	505 113	(92)18.2 (26)23.0	(146)28.9 (29)25.7	(267)52.9 (58)51.3	1.50(2)
성별	남성 996 여성 839	(384)38.6 (218)26.0	(612)61.4 (621)74.0	32.65(1)***	393 225	(81)20.6 (37)16.4	(120)30.5 (55)24.4	(192)48.9 (133)59.1	6.04(2)
연령	40대 미만 382 50대 394 60대 이상 1,059	(114)29.8 (148)37.6 (340)32.1	(268)70.2 (246)62.4 (719)67.9	5.80(2)	121 153 344	(25)20.7 (19)12.4 (74)21.5	(25)20.7 (42)27.5 (108)31.4	(71)58.7 (92)60.1 (162)47.1	12.96(4)***
학력	초졸 1,094 중졸 336 고졸 이상 405	(314)28.7 (133)39.6 (155)38.3	(780)71.3 (203)60.4 (250)61.7	20.85(2)***	320 133 165	(58)18.1 (19)14.3 (41)24.8	(91)28.4 (40)30.1 (44)26.7	(171)53.4 (74)55.6 (80)48.5	5.74(4)
결혼유형	부부 1,390 외짝 390	(527)37.9 (69)17.7	(863)62.1 (321)82.3	55.91(1)***	536 76	(100)18.7 (16)21.1	(151)28.2 (22)28.9	(285)53.2 (38)50.0	.34(2)
가족수	1-2인 1,038 3-4인 559 5인 이상 238	(325)31.3 (203)36.3 (74)31.1	(713)68.7 (356)63.7 (164)68.9	4.50(2)	328 211 79	(61)18.6 (38)18.0 (19)24.1	(102)31.1 (52)24.6 (21)26.6	(165)50.3 (121)57.3 (39)49.4	4.56(4)
세대수	1세대 977 2세대 608 3세대 이상 250	32.1 34.9 30.4	67.9 65.1 69.6	2.03(2)	318 217 83	18.9 17.5 24.1	31.1 25.8 24.1	50.0 56.7 51.8	4.39(4)***

***<.001

4.3. 이용하는 공공 여가시설

여가를 목적으로 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교육, 모임의 주된 장소이며, 일상 업무를 위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인 '마을회관'(44.6%), '면사무소'(29.2%)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12.5%), '건강관리실'(8.5%), '군민회관'(5.2%) 순이었다. 여가시설은 공공기관, 농업기술센터, 면사무소는 광역단위 여가시설로, 마을회관, 경로당은 마을단위

여가시설로 분류해 볼 때 농촌주민들은 광역여가시설보다는 마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마을여가시설을 더 이용하고 있었다.

남성, 연령대가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마을회관’ 이용률이 더욱 높았던 반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중졸 학력 층에서 ‘면사무소’ 이용률이 조금 더 높았으며, 40, 50대 연령층에서 ‘농업기술센터’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결혼유형, 가족 수, 세대수와 이용하는 공공 여가시설 종류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주로 이용하는 공공 여가시설

N(%)

구 분		계	광역시설			마을시설		χ ² (df)
			군민회관	면사무소	농업 기술센터	마을회관	건강 관리실	
계		616	30(5.2)	169(29.2)	72(12.5)	258(44.6)	49(8.5)	
농가 여부	농가	482	23(4.8)	137(28.4)	67(13.9)	216(44.8)	39(8.1)	7.03(4)
	비농가	96	7(7.3)	32(33.3)	5(5.2)	42(43.8)	10(10.4)	
성별	남성	373	12(8.8)	112(30.0)	49(13.1)	117(47.5)	23(6.2)	17.00(4)**
	여성	205	18(8.8)	57(27.8)	23(11.2)	81(39.5)	26(12.7)	
연령	40대 이하	100	9(9.0)	36(36.0)	17(17.0)	27(27.0)	11(11.0)	38.99(8)***
	50대	140	4(2.9)	46(32.9)	28(20.0)	49(35.0)	13(9.3)	
	60대이상	338	17(5.0)	87(25.7)	27(8.0)	182(53.8)	25(7.4)	
학력	초졸 이하	173	16(5.1)	73(23.3)	29(9.2)	173(55.1)	23(7.3)	35.97(8)***
	중졸	45	5(3.9)	48(37.5)	21(16.4)	45(35.2)	9(7.0)	
	고졸이상	40	9(6.6)	48(35.3)	22(16.2)	40(29.4)	17(12.5)	
결혼 유형	부부	498	26(5.2)	154(30.9)	64(12.9)	214(43.0)	40(8.0)	6.57(4)
	외짝	71	4(5.6)	13(18.3)	7(9.9)	40(56.3)	7(9.9)	
가족수	1-2인	323	17(5.3)	85(26.3)	37(11.5)	157(48.6)	27(8.4)	12.99(8)
	3~4인	187	12(6.4)	54(28.9)	25(13.4)	79(42.2)	17(9.1)	
	5인 이상	68	1(1.5)	30(44.1)	10(14.7)	22(32.4)	5(7.4)	
세대수	1세대	315	15(4.8)	83(26.3)	35(11.1)	157(49.8)	25(7.9)	15.05(8)
	2세대	195	13(6.7)	58(29.7)	25(12.8)	78(40.0)	21(10.8)	
	3세대	68	2(2.9)	28(41.2)	12(17.6)	23(33.8)	3(4.4)	

<0.01, *<.001

4.4. 필요로 하는 문화여가시설

농촌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여가시설로 '건강 및 체육시설' 응답이 63.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로당(노인회관)'(20.4%), '공공회관'(5.2%), '공공도서관'(4.7%), '공연장'(2.8%), '박물관/미술관'(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농가, 40, 50대 연령층, 중졸이상 학력 층에서 '건강 및 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욱 많았던 반면, 60대 이상 연령층, 초졸 이하 학력층, 외딴가족, 1세대 가구에서 '경로당(노인회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5> 필요로 하는 문화여가 시설

N(%)

구 분		계	공공도 서관	공공 회관	공연박 물관	건강·체 육시설	경로당	기타	$\chi^2(df)$
계		1,806	(78)4.3	(94)5.2	(12).7	(1147)63.5	(369)20.4	(55)3.0	
농가 여부	농가	1,335	(41)3.1	(72)5.4	(7).5	(875)65.5	(274)20.5	(32)2.4	32.12(6)***
	비농가	471	(37)7.9	(22)4.7	(5)1.1	(272)57.7	(95)20.2	(23)4.9	
성별	남성	990	(31)3.1	(62)6.3	(3).3	(634)64.0	(203)20.5	(27)2.7	17.33(6)
	여성	816	(47)5.8	(32)3.9	(9)1.1	(513)62.9	(166)20.3	(28)3.4	
연령	40대 미만	375	(42)11.2	(11)2.9	(7)1.9	(264)70.4	(26)6.9	(3).8	218(12)***
	50대	388	(20)5.2	(32)8.2	(2).5	(272)70.1	(39)10.1	(8)2.1	
	60대 이상	1,043	(16)1.5	(51)4.9	(3).3	(611)58.6	(304)29.1	(44)4.2	
학력	초졸	1,078	(16)1.5	(64)5.9	(2).2	(646)59.9	(292)27.1	(43)4.0	181.2(12)***
	중졸	330	(21)6.4	(16)4.8	(1).3	(230)69.7	(46)13.9	(6)1.8	
	고졸이상	398	(41)10.3	(14)3.5	(9)2.3	(271)68.1	(31)7.8	(6)1.5	
결혼 유형	부부	1,365	(67)4.9	(77)5.6	(11).8	(889)65.1	(246)18.0	(34)2.5	38.86(6)***
	외딴	387	(9)2.3	(17)4.4	(1).3	(215)55.6	(114)29.5	(21)5.4	
가족 수	1-2인	1,024	(17)1.7	(55)5.4	(3).3	(618)60.4	(266)26.0	(43)4.2	104.6(12)***
	3-4인	548	(41)7.5	(33)6.0	(5).9	(362)66.1	(77)14.1	(9)1.6	
	5인 이상	234	(20)8.5	(6)2.6	(4)1.7	(167)71.4	(26)11.1	(3)1.3	
세대 수	1세대	964	(17)1.8	(51)5.3	(3).3	(579)60.1	(252)26.1	(40)4.1	86.46(12)***
	2세대	596	(45)7.6	(32)5.4	(5).8	(394)66.1	(86)14.4	(12)2.0	
	3세대 이상	246	(16)6.5	(11)4.5	(4)1.6	(174)70.7	(31)12.6	(3)1.2	

***<.001

4.5. 여가소비 유형과 여가정체성 및 대인관계, 생활만족도의 관계

농촌주민들의 여가소비 유형에 따른 여가정체성 및 대인관계,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래 8개 문항으로 1점(매우 아니다)~5점(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주성분분석과 직각회전을 이용하여 요인분석한 결과 3개의 요인 즉, 여가활동의 즐거움과 관심 정도를 여가정체성으로 명명하였고, 타인과의 대화, 존중, 취미나 가치관 공유, 타인과의 위기극복 노력을 대인관계로 명명하였으며, 현재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과 여가체육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생활만족도로 명명하였다. 세 개의 요인으로 총 분산의 설명력은 70.1%였다. 여가정체성은 평균 3.81이었으며, 대인관계는 3.65, 생활만족도는 2.41로 생활만족도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표 6〉 대인관계 및 여가 정체성, 생활만족도의 요인분석

구 분		성분			평균
		1	2	3	
여가 정체성	함께 보내는 여가시간이 즐겁다	.75			3.86
	여가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78			3.76
대인 관계	지인, 가족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83		3.58
	타인을 존중하는가		.82		3.69
	종교, 취미, 가치관 등을 서로 공유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64		3.30
	위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군가와 함께 극복하려고 노력하는가		.74		4.04
생활만족도	현재의 농촌생활에 만족하는가			.75	2.63
	체육여가시설 환경에 만족하는가			.75	2.19
Eigen Value		3.48	1.13	1.04	
Explained Variance		43.55	14.18	13.05	
Cronbach α		.75	.83	.56	

1 매우 아니다~5 매우 그렇다

여가소비 유형별로 여가정체성 및 대인관계, 생활만족도 수준을 살펴 본 결과 'TV·비디오 보기, 라디오 듣기, 음악감상', '신문, 잡지, 책읽기' 등의 기준여가 활동층과 '화투, 장기', '운동, 등산, 낚시, 여행' 등의 완전한 여가활동층에서 여가정체성이 높았고, 또한 완전한 여가활동층이 대인관계, 생활만족도에서 가장 높았다. 공공 여가시설을 이용하는 층이 이용하지 않는 층보다 여가정체성과 대인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여가시설 이용빈도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가시설 이용을 마을단위 여가시설보다는 광역단위 여가시설을 이용하는 층에서 여가정체성과 대인관계가 의미있게 높게 나타났으며, 필요시설로서 건강체육시설을 필요로 하는 층이 여가정체성과 대인관계에서 미미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예술박물관을 필요로 하는 층이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7〉 여가소비 유형과 여가정체성 및 대인관계, 생활만족도의 관계

단위 : M(SD)

구 분		계(명)	여가정체성	대인관계	생활만족도
계					
여가유형	기준여가	688	3.85(.61)	3.69(.59)	2.62(.77)
	수동적여가	623	3.74(.60)	3.53(.59)	2.57(.76)
	완전여가	238	3.85(.66)	3.73(.58)	2.75(.82)
F			6.67**	16.37***	4.46*
여가시설 이용경험	이용	580	3.89(.58)	3.74(.56)	2.68(.82)
	이용안함	1187	3.78(.65)	3.61(.61)	2.61(.74)
F			14.05***	21.05***	3.23
여가시설 이용빈도	주 1-2회	113	3.80(.63)	3.63(.65)	2.64(.83)
	월 1-2회	168	3.89(.58)	3.73(.55)	2.70(.78)
	모임 시	311	3.94(.56)	3.79(.52)	2.67(.85)
F			2.44	3.65	.19
이용하는 여가시설	광역시설	268	3.98(.57)	3.81(.56)	2.75(.85)
	마을시설	320	3.82(.59)	3.68(.55)	2.64(.80)
F			11.64**	7.76**	2.58

필요시설	공공회관	169	3.78(.54)	3.68(.58)	2.69(.74)
	예술, 박물관	62	3.77(.61)	3.65(.58)	3.00(.86)
	건강시설	1116	3.86(.60)	3.68(.57)	2.60(.76)
	경로당	394	3.72(.72)	3.55(.67)	2.64(.78)
F			5.16**	5.42**	5.84**

* < 0.5, ** < 0.01, *** < .001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농촌지역 주민의 여가소비유형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전국 단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농촌여가 소비분야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촌주민의 여가유형 선호요인을 농촌생활지표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을 주요한 연구내용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농촌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연구에서 Mckehnie(1974)는 여가문화를 봉사활동, 운동, 등산, 스포츠 등의 적극적인 활동과 관람, 감상, TV, 라디오 청취 등은 소극적인 활동으로 나누고 있다. 이외에도 신체를 이용한 조작활동, 사고를 이용한 지적활동, 일상생활인 생활 및 스포츠활동으로 구분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주민의 여가소비 유형을 Szalai(1972)의 여가유형 분류에 기준하여 기준여가, 수동적 여가, 완전 여가로 나누었다. 'TV·비디오 보기', '라디오 듣기', '음악 감상', '신문', '잡지', '책읽기'를 기준여가 활동으로, '이웃 친구와 이야기하기', '집에서 그냥 있음'을 수동적 여가활동으로 '화투', '장기', '등산', '운동', '낚시', '여행'을 완전한 여가활동으로 분류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전반적인 경향으로 농촌주민의 여가소비 유형은 'TV·비디오 보기, 라디오 듣기, 음악 감상'과 '이웃, 친구와 이야기' 59.9%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집에서 그냥 있음', '운동, 등산, 낚시, 여행', '신문, 잡지, 책읽기', '화투, 장기, 바둑'은 36.5%를 차지하고 있다. 여가유형별로는 기준 여가활동으로서 'TV·비디오 보기, 라디오 듣기, 음악 감상', '신문, 잡지, 책읽기' 등은 농가, 남성, 60세 이상, 초졸 이하 및 고졸이상에서, 부부가 함께 사는 가족, 가족 수는 1~2인이나 5인 이상인 가족에서, 1세대나 3세대 이상 사는 가족에서 높게 나타났다. 수동적 여가활동은 '이웃 친구와 이야기하기', '집에서 그냥 있음' 등은 비농가, 여성, 60세 이상, 학력이 낮은 층, 외딴 가족, 가족수가 1~2명, 1세대 가족에게서 높았으며, 완전 여가활동으로 장기나 운동 등은 비농가, 남성, 젊은 층, 고학력 층, 부부가족, 가족수가 3~4이고 2세대 가족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주민들 중에 특히 수동적 여가활동에 머물러 있는 비농가, 여성, 60세 이상, 저학력 층, 외딴 가족, 가족수가 1~2명인 가족들의 여가활동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여가시설 이용경험과 이용 정도 여가를 위해 공공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층이 32.8%였으며, 경험 정도는 농가, 남성, 중졸 층, 부부가족에서 조금 높았던 반면, 비농가, 여성, 무학 층, 외딴가족에서 경험 비율이 조금 낮았다. 이용 정도는 교육, 모임이 있을 때 주로 이용한다는 응답이 52.4%로 가장 많았으며, 연령에 따른 이용정도는 60세 이상 고 연령층에서 1주일에 1~2회와 1달에 1~2회 가는 비율이 타 집단보다 높아 고 연령층에서 이용정도가 높았다. 세대수별로는 3세대 이상에서 공공시설 이용 빈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여가를 목적으로 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교육, 모임의 주된 장소이며, 일상 업무를 위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인 '마을회관'과 '면사무소'가 73.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건강관리실', '군민회관' 26.2%로 나타났다. 여가시설은 공공기관, 농업기술센터, 면사무소는 광역단위 여가시설로, 마을회관, 경로당은 마을단위 여가시설로 분류해 볼 때 농촌주민들은 광역여가시설보다는 마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마을여가시설을 더 이용하고 있었다. 남성, 연령대가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마을회관' 이용률이 더욱 높았던 반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중졸 학력 층에서 '면사무소' 이용률이 조금 더 높았으며, 40, 50대 연령층에서 '농업기술센터'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결혼유형, 가족 수, 세대수와 이용하는 공공 여가시설 종류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농촌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여가시설로 '건강 및 체육시설' 응답이 63.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로당'이 20.4%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농가, 40, 50대 연령층, 중졸이상 학력 층에서 '건강 및 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욱 많았던 반면, 60대 이상 연령층, 초졸 이하 학력 층, 외딴가족, 1세대 가구에서 '경로당'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마지막으로 농촌주민들의 여가소비 유형에 따른 여가정체성 및 대인관계,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여가소비 유형별로 여가정체성 및 대인관계, 생활만족도 수준을 살펴본 결과 'TV·비디오 보기, 라디오 듣기, 음악 감상', '신문, 잡지, 책읽기' 등의 기준여가 활동층과 '화투, 장기', '운동, 등산, 낚시, 여행' 등의 완전한 여가활동층에서 여가정체성이 높았고, 또한 완전한 여가활동층이 대인관계, 생활만족도에서 가장 높았다. 공공 여가시설을 이용하는 층이 이용하지 않는 층보다 여가정체성과 대인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여가시설 이용 빈도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가시설 이용을 마을단위 여가시설보다는 광역단위 여가시설을 이용하는 층에서 여가정체성과 대인관계가 의미 있게 높게 나타났으며, 필요시설로서 건강 체육시설을 필요로 하는 층이 여가정체성과 대인관계에서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술박물관을 필요로 하는 층이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농촌주민의 여가소비유형과 만족도에 대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삶의 질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여가 만족도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항목을 도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여가소비유형에 따른 여가정체성, 여가활동 및 대인관계, 여가 만족도의 변수를 살펴보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실제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의 타당성은 높였으나, 농촌지역 여가소비의 주요 특성인 농한기, 농번기 등을 고려하지 않은 특정시기에 한정된 결과라는 한계점을 가진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농촌주민 여가소비형태에 따른 유형별 조사지역의 다양화·세분화하고 계절별 조사를 실시하여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대한 세밀한 고려가 필요하다.

■ 참고 문헌 ■

- 고동우. (2002). 여가동기와 체험의 이해: 이중추동모형과 이중통로 여가체험모형. *한국심리학회지*, 3(2), 1-23.
- _____. (2007). *여가학의 이해*. 세림출판.
- 김광득. (1997). *여가와 현대사회*. 서울: 자유출판사.
- 김광일, 김명애, 정재엽 & 신종관. (2003). 중학생의 여가스포츠활동 참가자 대인관계성향 및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교육학회지*, 8(2), 228-239.
- 김정근. (1998). 여가태도, 여가활동이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21(2), 222-236.
- 김정운 & 이장주. (2005). 여가와 삶의 질에 대한 비교문화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9(2), 1-15.
- 나명훈 & 최경호. (2005). 중학생의 여가활동 참여가 대인관계 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리서치*, 16(4), 733-742.
- 문재숙, 윤소영, 차경옥 & 전해정. (2007). *여가문화와 가족*. 서울: 신정.
- 박장근, 임란희 & 정승철. (2007). 노인의 여가활동 유형과 사회성 및 사회 대인관계 불안감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9(4), 637-648.
- 상영신, 고동우 & 정준호. (1996). 여가경험의 심리적 본질. *소비자연구*, 9(2), 35-57.
- 신정화. (1995). 노인층의 여가현상과 문제점에 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7(4), 77-78.
- 안경일 & 김재현. (2002). 스포츠여가 활동과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의 관계, *한국학교체육학회지*, 12(2), 61-73.
- 오상훈, 임화순 & 고영미. (2006). *현대어개론*. 서울: 백산출판사.
- 원형준. (1994). 여가활동 참여가 수도권 거주 노인의 고독감, 여가만족,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4(2), 90-104.
- 윤이중. (1996). 직장인의 생활체육 참가가 인지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이동현, 김승철. (2003). 중년여성의 여가스포츠 참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4(4), 199-207.

- 이승훈. (1996). *청소년의 여가생활양식과 비행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진아. (2000). 주부의 신체적 여가활동 참가와 대인관계성향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체육학회지*, 14(1), 199-207.
- 정영린. (1997). *생활교육 참가와 여가만족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Crandell R. (1979). Social interaction, Affect and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1(3).
- Diener. E. (1984).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1, 103-157.
- Flanagan, J. C. (1978). A Research approach to improving our quality of life. *Americans psychology*, 33, 138-147.
- Haggard, L. M., & Willams, D. R. (1992). Identity Affirmation through Leisure Activities: Leisure symbols of the self.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4, 1-18.
- Iso-Ahola, s. E. (1980a). *The social psychology of leisure and recreation*. Dubuque, Iowa: Wm. C. Brown.
- Iso-Ahola, s. E. (1980b Ed).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leisure and recreation*.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 Kaplan, M. (1960). *Leisure in America: A Social Inequity*: John wiley & Sons Inc.
- Kelly. J. & Freysinger, V. (1999). 21st century leisure: current issues.
- Kellu. J. R. (1993). Leisure-family research : Old and New issues. *World Leisure and Recreation*, 35, 5-9.
- Kleiber. D. A., & Kirshnit. C. (1991). Sport Involvement and identity formation. In L. Diamant(ED). *Mind-body maturity : Psychological approaches to sport. exercise and fitness* NY. Hemisphere.
- Lutzin, s. G., & Storey, E. H. ed. (1973). *Managing Municipal Leisure Services*. Washington D. C.: The International City Management Associations, 125.
- Mannell, R. C., & Kleiber., D. A. (1997). *A Social psychology of leisure*. PA: Venture Publishing.
- Mancinid, J. A. & Orther, D. K. (1980). Situational influences of leisure satisfaction

- and morale in old age.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28, 112-131.
- Mckechine, G. E. (1974). The Psychological Structure of Leisure: Past Behavior. *Journal of Leisure Research*, 6, 17-45.
- Neulinge, J. (1981). *The Psychology of Leisure*. (2nd ed). Springfield. Ill. : Charles C. Thomas.
- Orthner, D. K. (1976). Patterns of Leisure and Martial Intera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8(2), 98-111.
- Paluba., G. V., Neulinger, J. (1976). Stereotypes based on free time activities. *Loisir et Societe/ Society and Leisure*, 3, 89-95.
- Ragheb, M. G & Mckinney, J. (1993). Campus recreation and perceived academic stress. *Journal of Collage student Development*, 34, 5-10.
- Riddick, C. (1986). Life Satisfaction precursor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8(4), 83-108.
- Shaw, S. M., Kleiber, D. A., & Caldwell, L. L. (1995). Leisure and identity formation in male and female adolescents: A preliminary examin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7(3), 235-263.
- Shamir. B. (1992). Some correlates of leisure identity salience : Three exploratory studi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4, 301-323.
- Stebbins R. A. (1992). *Amateurs. Professionals, and Serious Leisure*. Montreal, PQ: McGill-Queen's University.
- Szalai, A. (1972). *The Use of Time, The Hauge*. the Netherland: Mouton & Co, 562-564.
- Zuzanek, J., John Robinson & Yoshi Iwasaki.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Health and Physically Active Leisure as Function of Life-cycle. *Leisure Science*, 20, 253-275.